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 2022년 5월 29일(일) 총 3매			
담당 부서	보건환경 연구원	담당자	• 질병조사과장 한영선 ☎440-7981 • 담당자 김수진 ☎440-7986		
사진(이미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인천연안 바닷물서 비브리오패혈증균 첫 검출

- 고위험군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준수 당부 -
 -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고, 바닷물 닿으면 깨끗한 물로 씻어야 -

인천광역시는 24일 소래포구에서 채수한 바닷물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검출됨에 따라 어패류 섭취 및 고위험군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.

이번 결과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사업 운영을 통해 나타났다.

비브리오패혈증균은 5월부터 10월 사이 18℃ 이상의 수온과 적절한 염분 농도가 유지될 시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어 환자 발생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.

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2명(인천 4명)의 환자가 발생했으며, 올해는 지난 4월 첫 번째 확진 환자 발생 이후 총 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.

임상증상은 급성 발열, 오한, 혈압 저하, 복통, 구토, 설사 등이 동반되며,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하는 등 진행 속도가 빨라 신속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50% 전후에 이르는 위험한 감염병으로 고위험군(간질환자, 당뇨병 환자, 면역저하 환자 등)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며,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. 또 바닷물이 닿았을 때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를 씻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.

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와 따뜻해진 날씨로 바다를 찾는 여행객이 늘고 있어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”며 “특히, 고위험군은 예방수칙 준수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<붙임> 참고자료

1. 비브리오패혈증은 무엇인가요?

- 비브리오 패혈균(*Vibrio vulnificus*)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는 감염증입니다.

2.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시 증상은 무엇인가요?

- 급성 발열, 오한, 혈압 저하, 복통, 구토,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발열 후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합니다.
- 피부 병변은 주로 하지에서 시작하는데, 병변의 모양은 발진,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,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면서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합니다.

3. 비브리오패혈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?

-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며, 사람 간 전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.

4.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?

- 어패류 생식을 피하고,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삼가야 합니다. 특히, 고위험군(간질환자(만성 간염, 간경화, 간암), 당뇨병 환자, 알코올 중독자, 면역저하 환자 등)은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어패류는 가급적으로 5℃ 이하로 저온 저장, 85℃ 이상으로 가열처리하거나 흐르는 수돗물에 씻은 후 섭취. 또한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, 칼 등은 소독 후 사용해야 합니다.

5. 비브리오패혈증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?

- 적절한 항생제 복용을 통해 치료하고,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상처치료를 병행합니다.

<자료출처 : 질병관리청>